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9)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본문 요한복음 15:1-7]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6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한 곳에서만 계속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능력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능력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듣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부부도 관계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은 관계이냐 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인격적인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믿고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철저하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되어진 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앞으로 승리가 올 것이 아니라 승리가 이미 온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벌써 무너졌습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귀신은 떠났고 악한 세력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발자국소리,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듯이 내 영혼에 축복의 비가 오는 소리를 내가 들어나이다' 라는 환상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고 조금 다른 형태로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만큼 기도가 응답됩니다.

마음 밭 갈아주시는 농부 하나님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키웁니다. 그리고 농부는 열매를 걷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밭을 가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키우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길가, 자갈밭, 가시덤굴 밭, 옥도에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 그대로 삽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쉽게 변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 걸레를 바닥에 긁어서 헌 걸레로 만들 듯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부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아져야 합니다. 뒤엎어야 합니다. 옥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나무를 위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먹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주인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 다른 이들이 풍족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는 인간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무들이 한결같이 재목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감조차 하기 힘든 나무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무들은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령주령 열려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먹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 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 하십니다. 열매를 얻으러 갔다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한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다시 한 번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뺄어나가는 가지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당신이 맺는 것입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영적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은혜를 받는 분은 더 받을 것이고 못 받는 분은 더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는 말씀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멀리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다음에 나오기 힘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영적법칙입니다. 시험받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망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맺으면 더 맺게 될 것이고 맺지 못하면 찍혀버릴 것이라는 것이 영적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유능하고 현명한 농부는 가지치기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영양공급을 더 잘해주기 위하여 과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만 보면 흥분하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우리는 돌을 보아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그 돌에서 작품을 구상하기 때문에 흥분합니다. 조각가는 끌과 망치를 들고 돌을 향하여 찍기 시작합니다. 조각가는 돌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서 어디를 깎아 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치는 것 같지만 다 계산하고 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치기 하십니다. 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

정없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십니다. 정확하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십니다. 어떤 때는 사정없이 자르십니다. 어떤 이를 위해서는 돈을 잘라내십니다.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겸손해질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시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 무섭게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 가지를 위해 깨끗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이 '깨끗게 하신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더러운 것을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죽는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수술할 때 어떻게 마취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취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지는 순간에 수술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깨어나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던 모든 종양과 암 덩어리들이 모두 제거되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셔도 될 만큼 괜찮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과 끝에 맞아야 합니다. 내가 못된 것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변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는 자신의 몸을 최상으로 가볍게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밉코트를 입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벗어 버립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불필요한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가지는 다 찍어 버리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나를 부셔주시고 녹여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

3~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세탁제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한다' 는 말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17의 핵심단어는 전치사 'in'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말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소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터전이 바뀐 것입니다.

'절로'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첫째로 깨끗해야 하

며, 둘째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가지는 바람이 불어 찢어져서 그보다 조금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지도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더 찢어지면 수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흐릅니다. 능력이 흐르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매일 교회 생활로 바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봐야 엉뚱하게 돈만 쓰고 다녀오면 배부른데도 상처받고 허무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든지 교회 안에 붙잡아 두든지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눈을 뜨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저녁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이 흐르는 가지

5~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잘리는 순간 노랄게 바래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노랄게 마릅니다.

어떤 이들은 날이 갈수록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도 죽어가고 생기도 없어집니다. 찬송 부르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갈수록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다르고 눈동자가 반짝이고 가슴은 뛰고 어디론가 훌쩍 날아갈 것 같이 활기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며 이루리라』

기도의 비밀이 계속 나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종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살아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기쁨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살아 있는 가지가 되어 생기와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은누리신문